

□ 대학교양교육협의회

2009. 03. 09. (월) | 편집진

대학교양교육협의회는 2008년 12월 16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14회 정기총회에서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인 강명구 교수를 제 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서 강명구 회장은 2009년 2월 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새로 구성된 이사진과 임시 이사회를 갖고 협의회 운영의 전반사항을 논의하였다. 신임 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양교육협의회 이사 명단

회장(1) : 강명구(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자문위원(5) : 손동현(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박종렬(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경찬(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전 학장),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양왕용(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부회장(8) : 김혜숙(이화여자대학교 스트랜튼대학 학장), 권성호(한양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유진희(고려대학교 교양과정부 교무처장), 여건종(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부 교수), 조옥라(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장), 김상준(경희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설현영(조선대학교 교무처 교무처장), 전경희(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장)

총무이사(3) : 황성동(경부대학교 기초교육원 부원장), 최종철(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교수), 정명희(안양대학교 교양학부 학장)

기획이사(3) : 신승훈(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율전공학부장), 하병학(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학부장), 이보경(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전임교원)

연구이사(3) : 백옥인(서울산업대학교 기초교육학부 학부장), 홍성하(우석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이현혜(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장)

재정이사(3) : 김혜영(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임만호(가천의과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김원형(대전대학교 교무연구처 교수)

대외협력이사(3) : 김정기(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학부장), 임진아(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국제교류센터 교양책임교수), 김종록(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운영이사(8) : 장세현(대구대학교 교양교직부 부장), 김창진(강릉대하곡 교무처 교무처장), 정상봉(건국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배채진(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부 학부장), 박명관(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송희현(안동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소장), 최한빈(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장운상(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감사(1) : 현경석(한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C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03. 09. (월) | 편집진

한국교양교육학회는 2008년 12월 16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경원대 교양대학장인 박충연 교수를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충연 회장은 2009년 3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운영회의를 갖고 학회 운영의 전반사항을 논의하였다. 신임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양교육학회 임원 명단

자문위원(5) : 김진우(일리노이대 명예교수), 박이문(포항공대 명예교수), 이어령(이화여대 명예교수), 민경찬(연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상임자문위원(2) : 손동현(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권성호(한양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회장(1) : 박충연(경원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부회장(3) : 박형지(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학부장), 윤우섭(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학장), 이지현(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원장)

총무이사(1) : 최종철(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교수)

연구이사(1) : 정희모(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편집이사(1) : 윤승준(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재정이사(1) : 김재일(단국대학교 행정대학 교수)

섭외이사(1) : 지인영(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감사(2) : 현경석(한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양상석(부산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센터장)

평이사(12) : 강석우(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박병구(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박영태(동아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백옥인(서울산업대학교 기초교육학부 학부장), 부남철(영산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이승희(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이재봉(부산외국어대학교 교양연계학부 학부장), 임규정(군산대학교 교수),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센터 소장), 전경희(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장), 조병학(가천의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지은림(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연구위원회 :

위원장 : 정희모(위원장,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위원 : 김은정(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김정기(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부장),

김지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박희숙(국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배개화(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보경(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황성동(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부원장),

이은숙(계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편집위원회 :

위원장 : 윤승준(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위원 : 김응빈(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기획부학장), 김종록(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김창섭(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진호(한양대학교 학부대학 주임교수), 이상숙(경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장수철(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조환규(부산대학교 교수), 한문섭(한양대학교 학부대학 주임교수), 허재영(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현우식(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홍종인(서울대학교 자연대 교수)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안내

2009. 03. 09. (월) | 편집진

<미국의 대학생은 지금>

| 레베카 네이던 저 | 심계순 역 | 다산미디어 | 2006

(원제: Rebekah Nathan, My Freshman Year: What a Professor Learned by Becoming a Student(Penguin, 2006))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던 미국 주립대학의 50대 여교수가 자신의 대학에 신입생으로 정식 등록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대학생들의 세계'가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물론 저자는 가명이다. 학생들의 공간, 이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 강의실에서의 행동양식, 학교에 다니는 이유 등이 재미있게 그러나 매우 섬세하고 날카롭게 드러나 우리나라의 학생들, 특히 신입생들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파우스트의 거래>

데렉 북 저 | 김홍덕 역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05

(원제: Derek Bok, Universities in the Marketplace: The Commercialization of Higher Education(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하버드 대학 전임 총장이었던 저자가 지식의 상품화에 따른 대학의 산업체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오늘날 대학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대학이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는 수익 추구 기회를 다소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굳건히 고수하는 대학들이 결국 공공 대중과 교수 및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대학의 목적과 이념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스무살에 선택하는 학문의 길: 대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김용준, 정운찬 외 | 아카넷 | 2005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학문적 삶을 살았던 학자와 대학행정가 들이 후학들을 위하여 쓴 학문과 대학에 대한 길잡이이다. 학문에 대한 소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문영역의 주요개념과 연구방법, 이론과 실천의 관계성찰 등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소개되어 있어 대학 신입생들이나 학부학생들에게 읽히기 좋은 책이다.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8

국내의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자료가 빈약한 현실에서 나온 이 책은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양교육의 경험을 잘 요약해줌으로써 서울대의 사례를 따라 변화해온 우리 나라 대학들의 교양교육의 자화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대 기초교양교육의 전사로서의 경성제대 예과의 교양교육체제부터 최근까지의 기초교양교육의 발전과정을 다루면서, 기초교양교육 체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 이해집단, 즉 정부, 대학교수집단, 대학생 집단 간의 세력관계를 기준으로 교양교육 60년사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단계는 교양교육의 주도권이 형식상으로는 정부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방임되었던 시기를 교양교육의 정초기(1946-1967)로, 교양교육의 주도권이 정부당국에 집중된 채 타율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교양교육의 실험기(1968-1989)로, 그리고 교양교육의 주도권이 다시 대학에 복권되면서 자율적 성장이 시작된 시기를 교양교육의 성장기(1990-현재)로 구분하면서, 각 시기의 고등교육 정책기조(정부-대학관계), 학사구조, 교과과정, 그리고 교양교육의 문화를 기술하고 있다.

Walter W. McMahon, <Higher Learning, Greater Good: The Private and Social Benefits of Higher Education>(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대학교육은 오랫동안 개인의 성공과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편이었다. 저자인 Walter W. McMahon은 선도적인 교육 경제학자로서, 대학교육의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신중하게 기술하고,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유의한 이득이 발생한다고 제안한다.

McMahon's research uncovers a major skill defici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OECD countries owing to technical change and globalization. Yet a college degree brings better job opportunities, higher earnings, and even improved health. Higher education also promotes democracy and sustainable growth and contributes to reduced crime and lower state welfare and prison costs. These social benefits are substantial in relation to the costs of a college education. Offering a human capital perspective on these and other higher education policy issues, McMahon suggests that poor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nonmarket benefits leads to private underinvestment. He offers policy options that can enabl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to increas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서 인용)

James Martin, James E. Samels & Associates, <Turnaround: Leading Stressed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Excellence>(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이 책은 대학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대학조직의 병을 진단하고 너무 늦기 전에 치료방안을 처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을 쓴 전문가들은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숭고한 목적과 상업적 현실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Richard Ekman, President, Council of Independent Colleges)

Nearly one thousand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face major challenges--from catastrophic hurricanes to loss of accreditation to sagging enrollment. What can leaders of such at-risk institutions do to improve their situation? Turnaround gives college and university leaders the tools they need to put their fragile institutions back on a path to success.

This comprehensive handbook outlines how board members, presidents, and administrators can identify their institutions' weaknesses, implement plans for improvement, and mitigate existing damage. Turnaround also identifies the legal pitfalls that often accompany institutional change, offering solutions for how to overcome such obstacles or avoid them altogether.

Evaluating the experiences of two hundred college leaders, the contributors share such critical information as:

10 necessary indicators of institutional vulnerability
5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that have completed successful turnarounds
10 lessons of successful turnarounds

Featuring candid advice from decision makers who have faced severe challenges, Turnaround is a valuable resource for college and university leaders facing tough time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서 인용)

Jay Parini, <Promised Land: Thirteen Books That Changed America>(Doubleday, 2008)

역사전문가로서 나는, 책은 국가의 문화를 보여주는 유전자와 같다고 생각해 왔다. 이 책은 나의 이론을 증명하는 보물 같은 책이다. 저자는 어느 책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매우 치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는 또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책 100권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Promised Land는 모든 미국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위대한 자산이다.

(Pat Schroeder, President & CEO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이 책에서 시인이자 소설가이면서 문학평론가인 Parini는 미합중국의 혼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책들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고전 걸작도 있으며, 미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순간을 다룬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책 전반에 걸쳐서 저자는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Parini makes his case while wearing his learning lightly). William Bradford의 Of Plymouth Plantation에서 Betty Friedan의 The Feminine Mystique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은 미국의 복잡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들이다. 진화하는 미국의 역동성에 대해 주제군 별로 묶여 있는데, 미국의 실험(The Federalist Papers), 대륙 탐험(The Journals of Lewis and Clark),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결합(Walden), 인종 문제(Uncle Tom's Cabin and The Souls of Black Folk 등), 산업과 그에 대한 반문화(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and On the Road)로 구성되어 있다. Dr. Spock의 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을 다룬 챕터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선정된 100 권 역시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친 책들로서, 미국학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만한 것들이다.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서 인용)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학술대회

2009. 03. 09. (월) | 편집진

제 22 회 신입생경험(First-Year Experience)국제학술회의 개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부설 '신입생 경험 및 전환기학생 교육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The First Year Experience and Students in Transition)가 개최하는 연례 국제학술회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7월 20일~23일 열릴 예정이다. 워크숍과 개별 세션 들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 지원생들을 모으고 유지할 수 있는 성공적 교육 프로그램
- 학문적 경험과 학생의 성공과 관련된 주제들
- 교수, 학사행정가, 학생 신상문제 상담가, 3자 간의 제도적 협력관계 구축 지원방안
- 신입생을 성공적인 학생, 적응 잘하고 인간애를 가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교육하는 보 완 프로그램의 발견

발표를 위한 초록제출 및 참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c.edu/fye/> 를 참조.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C 이용할 수 있습니다.